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31주일 위령의 날 (위령성일)
제28권 49호 (가해) 2008.11.2

<위령 성월 기도문>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리이까.
-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섬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 요 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레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파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파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엄은섭 도로테오, 정선결 모니카, 최옥선 글라라, 박문규 프란체스코, 이강희 윤일요한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엘리사벳, 조지 가보라, 방세실리아,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가정, 강호광 스테파노, 구마리아네 수녀
주 일 낮 미사	(연)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이은완 야고보, 이영자 마리아, 김진수 미카엘, 박순용 요안나, 최애경 안나, 함파리아, 이원길, 황만근 베드로, 송인식, 장석진, 이상현 베드로 (생) 이종민 요셉,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이영희 카타리나, 강유정, 송호민, 이경용 야고보와 윤조 글라라, 온천관광에 도움주신 모든 분들, 백삼위 본당 전교우들, 구마리아네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3,1-9<또는 3,1-6.9>
화답송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뵈나이다.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지름길을 가르쳐주소서. 당신은 나를 구하시는 하느님이시니, 당신의 진리안을 견게 하시고, 그 가르치심을 내려주소서.◎ ○자애롭고 의로우신 주님이오라, 죄인에게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겸손한 자, 의를 따라 견게 하시고, 겸손한 자, 당신 도를 배우게 하시나이다.◎ ○당신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요이다. 주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다정하시며, 당신의 계약을 알리시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5,17-21
복 음 환호성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1,25-30
영성체송	주님,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자애로우시니, 주님의 성인들과 함께 비추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81	253
봉헌	264	257,220
성체	409	280,308
파견	392	346

19. 천교에 봉사하는 성사 - 성품성사와 혼인성사

▶ 혼인준비 (교육 및 서류)

혼인 예정자는 혼인하기 6개월 전에 소속 본당에 통보하여 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정의 혼인교육과 면담을 받고, 혼인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최종적인 혼인면담에서는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주임 사제 앞에서 혼인 당사자의 진술서 및 증인의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혼인 신청서** : 혼인하기 6개월 전 본당 사무실에서 혼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혼인 당사자의 정보를 기록, 날인하여 제출한다.

② **혼인교리교육 (카나 혼인강좌) 수료증** : 혼인 예정 당사자는 배우자와 함께 소속 교구(또는 타 교구)에서 실시하는 '혼인교리교육'(카나혼인강좌)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 받는다.

③ **세례증명서** : 혼인 당사자들이 가톨릭 신자로서 혼인을 하는 데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증서이며, 천주교에 입교하면 서 세례를 받은 곳의 본당에서 발급받는다.

④ **본인증명서(호적등본)/시민권 사본** : 한국인은 한국의 해당 관청서 발행하는 '본인증명서'(과거 호적등본)를, 미국인은 시민권 사본을 준비한다. 혼인 후엔 관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 위 서류들을 본당에 제출하면 사무장이 주선하여 주임 사제와 최종 혼인면담 할 날짜를 정한다.

⑤ **혼인장소 정하기** :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혼인장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혼인장소는 성당으로서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소속되어 있는 곳의 본당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본당 사제를 통해 관할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⑥ **혼인공시** : 혼인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제출되면 사무장은 본당 게시판이나 주보에 혼인을 2주간 공시한다.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당신부에게 알려야 하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다른 근거로 확인되면 혼인공시를 꺾을 수도 있다.(교회법 제1067조)

⑦ **최종 혼인면담** : 혼인공시 기간이 지나면 사무장은 신랑/신부 측 서류 일체를 혼인장소의 본당사무실로 우송한다. 당사자는 혼인장소의 본당에 연락하여 그곳 본당신부, 또는 혼인을 주례할 사제와 최종 혼인면담 일정을 정하고, 준비된 서류를 근거로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와 '증인 진술서'를 작성한다. 혼인에 관계된 모든 서류와 혼인대장은 혼인장소로 정한 본당에 보관된다.

⑧ **증인 세우기** : 혼인 당사자는 각각 이 혼인에 대한 증인을 세워야 하며, 증인들도 혼인예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증인은 혼인예식 전이나 후에 사제 앞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증인은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혼인 사실을 확인하는 의무를 띠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혼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자를 선정하는 것이 유익하다.

⑨ **혼인반지 및 혼인예식 준비하기** : 혼인반지는 배우자 서로의 혼인합의와 신의를 나타내는 성사적 징표이므로 소박하게 준비한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갈등과 상처가 생길 수 있다. 그만큼 서로를 위한 기도와 대화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다. 혼인을 앞둔 예비부부들은 자신들이 '혼인성사'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계속 - 박상대 신부 제공)

위령의 날

11월은 우리들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령 성월입니다. 날씨도 음산한 11월이라 우리들의 죽음을 묵상하기에도 좋은 달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관련해서 “돌아가다”라는 동사를 흔히 사용합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돌아가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요한 11.28).

주님께서도 진리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온 존재임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인간은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를 보내주신 하느님과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하느님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느님이고 죽음 후에 나를 기다리는 분이 하느님입니다. 우리네 인간은 이렇게 하느님과 하느님 사이에 있는 사이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흠과 친해진다 하고 합니다. 흠과 날로 친해지다가 흠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如來 여래) 가는 것(善逝 선서)입니다. 흠과 친해지

다가, 흠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흠으로 돌아가 흠과 하나 되듯이, 하느님과 친해지다가, 하느님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하느님께로 돌아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사건! 그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못한 인간이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세네카는 “철학자들의 일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하느님께 잘 돌아가기 위해서(善逝 선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을 하루하루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욕심을 덜어내고(人欲日消 인욕일소), 하루하루 하느님의 빛으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天理日明 천리일명).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욕심의 옷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찬 날, 우리들은 죽음을 통하여 마침내 주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미리미리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박성철 미카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미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김정은 젬마	김금자 테레사	권순길 체칠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2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11월
위령성월

- ◆ 병자영성체 :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동구역
- ◆ 남가주 합동 위령미사 : 8일(토) 오후 2시

● 장소: Holy Cross Cemetery Main Chapel(5835 W. Slauson Ave. Culver City, CA 90230)

- ◆ 성모회 기금마련 판매
 - 2일(주일) : 고추장, 된장, 새우젓, 깍두기(성모회표)
 - 9일(주일) : 가자미 식혜(성모회표)
 - 판 매 장소 : 아침/학생/낮미사 후 주방앞 친교장
- ◆ 최림 피아노 리사이틀
주일아침미사 반주자 최림 안젤라 자매의 USC 석사학위 마지막 독주회가 열립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11월3일(월) 오후 7시30분
● 장소 : USC Newman Recital Hall(Figueroa St. at USC Mcarthy Way, Gate #3) * 문의 ☎(310)514-1700
- ◆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한경숙 안나(PHN, NP 자격) 자매가 LA카운티 보건 면역당국에 요청하여 해마다 마련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도 다음과 같이 실시됩니다.
● 일시: 11월 9일(주일) 아침/낮 미사 후, 친교장
● 대상: 10세부터~, 계란 흰자와 알러지가 없고, 감기를 앓고 있지 않은 분. 문의: 사회복지분과 ☎(310)283-5879

◆ 자모회 도서 수집 및 책바자회

집에서 잠자고 있는 좋은 책들을 많이 기증해주세요. 신심서적, 청소년/아동/유아용 도서, 문학작품, 학교문제집 등.

- 수집장소 : 친교장 무대
- 바자회 일시 : 23일(주일) 미사 후 친교장
- 문의 : 장정진 베로니카 자모회 회장 ☎(310)803-7798

◆ 주일학교 / 한국학교 소식 ◆

- ◆ 불우이웃 돕기 캔푸드(Can Food) 수집
 - 주일학교에서 11월 한달동안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캔푸드(통조림)를 모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집장소 : 성당입구 수거함, ☎780-0369 강아네스 교장
- ◆ 한국학교에서 한영사전 기증 받습니다.
 -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영사전이 있으면 교재로 필요하오니 보내주십시오. 이헬레나 교장 ☎(310)347-8765

◆ 양업회 주최 족구시합 & 멧돼지 BBQ 파티

- 일 시 : 11월9일(주일) 오후 1시30분, 친교장
- 게임 후 멧돼지 BBQ 파티가 있습니다.
- 간단한 복장 및 운동복
- 각 신심단체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중시기 마무리 신앙 특강

- 11월12일(수) 오후 8시 : "나의 신앙 무엇이 문제인가?"
- 11월13일(목) 오후 8시 : "성사생활의 의미"
- 강사 : 나원균 바오로 몬시뇰/서울대교구 방배4동성당 주임

◆ 디지털 카메라 사진 앙코르 강의

- 일시 : 11월16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 대상 : 디지털 카메라에 흥미가 있으나 자세한 작동법을 모르는 초보자는 물론, 사진을 좀 더 잘 찍기를 원하는 교우들. ☎(949)502-1213 이안드레아 홍보부장

◆ 각종 보험에 대한 문의를 도와드립니다.

- 일시 : 11월16일(주일) 오후 1시, 2층교실
- 강사 : 라이선스 브로커 2명
- 보험종류 : 자동차, 생명, 건강, 주택, 건물, 사업체, 종업원 상해 보험 등(사회복지분과).

◆ 백삼위 테니스 동호회 회원모집

테니스를 즐겨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동호회를 결성코자 회원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체육분과위원회 ☎(310)922-1502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2일(주일) : 소공동체 (김밥 \$4)
- 11월9일(주일) : 하버/카슨 1반 (설렁탕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곽효식	김성현	김일선	김재영	김주량
	김철민	김태호	모은기	박기돈	배태임	손춘화
	안희경	오명섭	오세원	오일순	유선식	유영희
	유철희	윤경옥	윤석구	이경태	이병수	이인석
	이효세	임한나	지경수	최원석	하정화	한혁수
	홍석철	홍숙자				
	합계 : \$3,940					
미사헌금 : \$2,795						

성전헌금	강순복	곽효식	김성현	김일선	김재영	김주량
	김철민	모은기	박기돈	손춘화	안희경	오세원
	유선식	유철희	이경태	이병수	이인석	이일길
	이효세	임한나	지경수	최원석	하정화	한혁수
	홍석철	홍숙자				
합계 : \$2,645.60						
감사헌금 : 유지숙, 이석제						

공지사항

- ◆ **빈첸시오 회에서 신발(운동화 등)을 모읍니다.**
 - 보내는 곳 :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 까리파스 수녀원
 - 보내는 물품 : 작아서 사용하지 않는 신발(운동화 등)을 깨끗이 손질해 가져다주세요. * 성당입구에 수거함 비치
 - 문의 : 빈첸시오 ☎(310)283-5879
- ◆ **상본 전화(콜링)카드 판매**
 - 유효기간, 연결수수료 등이 없는 가장 저렴한 전화카드
 - 한국 통화 1분에 2.7센트
 - 파티마의 성모님, 사도 바오로 두 종류 각 \$20(사무실)
- ◆ **백삼위 마라톤 동호회 주말훈련**
 - 시간 : 매주 토/일 오전 6시부터
 - 장소 : Pennsylvania Av.(PCH~256th St.)
 - 누구나 환영, 걷기만해도 됩니다.
 - ☎ 최현찬 안드레아 코치 938-0848, 김철민 요한 740-1502
- ◆ **St. Margaret Mary School 신입생 모집**
백삼위 성당이 속한 성 마가렛 매리 본당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스쿨에서 2009 학년도 신입생(K-8)을모집합니다.
 - 학부모 초청 오픈하우스 : 2009년 1월25일(주일) 오전 8시~오후 1시. * 킨더가르텐(K) 어린이는 2009년 12월 1일로 만 5세가 되어야 합니다. ☎(310)326-9494

남가주 소식

-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발현 성지 순례**
 - 출발 : 매월 셋째주 목~일(3박4일)
 - 경비 : \$950(LA 출발 기준. 항공료에 따라 변동가능)
 - 후원 : 가톨릭신문사, 주관 : 투어월드 ☎(213)385-0043
- ◆ **제 27회 남가주 한인천주교회 추수감사절 합동미사**
 - 일시 : 11월27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30분
 - 장소 : Eldorado East Regional Park (Garden Grove Area)
 - 주례 : 로저 마호니 추기경
 - 주제 :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 미사 후 행사 : 가장행렬, 강강술래 등 각 본당 참여
 - 준비위원회 : 성엘리사벳 한인천주교회 ☎(949)725-9348
- ◆ **꽃동네 제4차 구역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12월 7일(주일) 오후2시~ 14일 오후2시(7박8일)
 - 대상: 일반 신자들, 참가비: \$300
 - 신청: 테메큘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남명자 데레사 328-0847 11/14(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정웅 요한 539-3377 11/8(토) 오후 7시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782-1025	문지숙 엘리사벳 375-8742 11/14(금) 오후8시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데레사 618-8499	김교복 레오 850-6253 11/8(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593 11/6(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11/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희자 마리아 325-6982	박희자 마리아 (213)500-2032 11/12(수) 오전 10시30분
	3	강은진 켈마 214-2290	이정아 리디아 (213)200-9432 11/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우영주 야고보 715-2609 11/7(금) 오후 7시, 성당
	3	대건회 : 거주지 역만으로 배속	대건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만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831-1888 11/14(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이병우 마리노 953-7903 11/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11/5(수)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박익세 세실리아 541-0700 11/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오아브라함 377-1402 11/21(금) 오후 7시
	3	윤은경 피카엘라 265-0856	이영섭 크리스토폴 377-7063 11/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김인숙 안젤라 926-5581 11/13(목) 오전 10시

위령성월 -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시기”

살고자 태어난 인간에게 죽음이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누구나 더 오래 살려하고, 가능하면 죽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죽음은 그야말로 숙명적이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왔지만,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죽더라도 다시 살아 날 것이라는 희망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는 문(위령미사 감사송)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고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기를 권고하며,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것을 촉구한다. 자모이신 성 교회는 특히 연옥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봉헌함으로써 그 영혼들이 하루빨리 천국에 들어 영생을 누리게 되어, 다시 지상의 나그네인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전구해 줄 수 있다는 ‘성인들의 통공’을 가르치면서, 11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묘지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사도신경, 주모경, 위령기도 등)하는 신자들에게 연옥 영혼에게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그리고 다른 날에는 한대사를 윤택하여 은혜를 받아 입도록 배려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의미를 특별히 되새기게 하는 이 시기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때이다. 이 뜻 깊은 시기를 맞아 항상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죽음의 의미를 잘 깨닫도록 노력하자.

◆박상대 신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마다 짙어진 십자가의 행로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안식의 시간이 시작됨을 알리는 종ی 울린다. 컷전을 때리며 울리다 사라져간 종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 누구인들 이 진통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던 날, 흐느끼던 통곡은 그대로 깊은 마음에 화석이 되곤 한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살육의 비명에 귀를 틀어막지 않아도 목격자로서의 고통을 저마다의 십자가에 추가하는 운명을 안고 가는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의 진행형이기에 집요한 물음에서 또한 벗어날 수 없음을 안다.

“당신은 무엇을 갖고 죽음의 문을 넘을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이슬람 수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쁨과 춤, 웃음을 갖고 가지.” 감격하여 듣고 있던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제가 “당신들의 신과 나의 신은 그 얼마나 닮은꼴인가?” 그렇다. 만물이 외치는 환희로운 찬가에 기쁨과 춤과 웃음이 없이 어찌 심장에 날개를 달아 태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겠는가.

죽음을 자매로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라 오르막길에 충신했던 그들의 삶 자체가 자유였으며 인생의 고달픔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세파를 건너 갈 수 있었다. 올라가든 날아가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그것이 라면,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는 올라 갈 수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인지를 앞에 놓고 고민 중에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 신경이 마취상태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지. 확실한 것은 자유를 만끽했던 모범생들은 결코 명품을 소유하거나 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해바라기처럼 웃음 진 얼굴은 그야말로 진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도, 알베르토 추미엘로프스키(폴란드 프란치스코 재속회 수사)와 성 요한 비안네 신부 등은 그의 오르막길을 벼로 삼았다. 우리를 이끌어 “더 높은 곳을 찾게 하는” 모범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교회의 큰 유산인 많은 성인들은 우리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천국에서 그들이 할 일은 도움을 청하는 백성, 하나하나의 손을 잡아주고 성교회를 보호하는 기도일 것이다. 이 세대의 특징이기도 한 우울증이 만연한 가운데 위기를 느낄 만큼 영적감성이 필요할 때다. 누구나가 겪는 삶의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눈물겹도록 아름답고도 죽음을 뛰어넘는 길이다.

◆하버카슨 1반 / 최 프란치스카